

나노기술, 소재 · 장비 “집중육성”

산자부, 나노기술집적센터 2곳 선정 … 반도체 · 디스플레이산업 연계

산업자원부가 나노기술집적센터 유치기관으로 소재 · 재료분야에서 포항공대 컨소시엄을, 장비 · 공정분야는 광주생산기술연구원과 전북대통합 컨소시엄을 각각 선정됐다고 7월26일 발표했다.

나노기술집적센터는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에서부터 산업화 활동까지를 일괄 지원하게 되며 2008년까지 민간 지원 900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.

장비 · 공정 분야에서는 연세대 컨소시엄과 충북대 컨소시엄, 전북대 컨소시엄, 생산기술연구원 컨소시엄 등 4곳이 신청한 결과 1차 평가를 거쳐 광주생산기술연구원 컨소시엄과 전북대 컨소시엄이 2차 후보로 올랐으나 양측이 통합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광주-전북 통합 컨소시엄이 탄생하게 됐다.

현재 나노기술은 불확실성과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초기단계의 기술로서,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와 상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.

국내 산업계의 관심기술로는 나노소재(44.0%), 나노장비(23.1%) 순이며, 앞으로 3년 안에 사업화하고 싶은



희망분야도 동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.

또 5년 안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제품으로는 나노소자 16개 제품, 나노소재 22개 제품, 나노장비 15개 제품 등으로 보고 있다.

나노기술의 실용화 시기

구 분		단기 (5년 이내)	중기 (5-10년)	장기 (10년 이상)
나노소자	실리콘계	5개	1개	
	비실리콘계	11개	6개	2개
나노소재	나노입자	7개		1개
	나노박막	8개		
	나노벌크/코팅	7개	4개	
장비	공정장비	10개	8개	
	측정분석장비	5개	2개	
나노바이오	나노진단기술	2개	3개	
	나노치료기술	2개	5개	1개
	나노바이오소재	-	5개	
환경/에너지	연료전지	4개		
	2차전지	2개		2개
	환경처리	2개	2개	3개

산자부는 나노기술집적센터 선정이 국내 반도체,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취약한 장비와 재료의 기술경쟁력을 보완하고 전문기업의 비즈니스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<조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7/27>